2021년 10월 31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4편 2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 [시편 44편 26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15**(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5장 17절(신약p.382)**

>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 **3.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 **말씀선포 /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의 자질과 자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당신의 일꾼을 통하여 이 땅에 선한 일을 이루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셨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에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일꾼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충성하는 자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외면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른 마음과 자세를 지니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충성된 일꾼의 마

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1.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행해야 합니다.

- 본문 1~2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 했습니다. 여기 "기꺼이" 라는 헬라어는 "프로뒤모스" 로서 "자진해서, 열성적으로, 너그럽게, 기꺼이, 아낌없이"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을 부탁받을 때 그 일을 자진해서 열성적으로 나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세상의 일은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일한 것만큼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고를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위해 땀 흘림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새벽 일찍부터 식사를 준비하고 수고합니다. 이렇듯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서도 장로를 세워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장로는 오늘날 교회의 장로와는 다릅니다. 그때에는 공식 신학교도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목회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천국 일꾼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거룩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당하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제일 중요한 자질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는 명령을 친히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권면한 것은 이런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자신의 이득을 위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랑하게 하는 일들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자세로 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겸손함으로 본이 되어야 합니다.

-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가 사역할 때 따라야 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모든 일에 본을 보임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고 하셨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여 주신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듯이 서로를 섬기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듯 예수님이 보여 주신 섬김의 리더십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2장 8~11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각자 사역을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자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뜻 이러한 자세로 일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합니다. 또 섬김의 리더십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일하는 자들이 모습이 그렇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사역자와 직분자 그리고 봉사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사랑함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5~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예수가 높아지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히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더욱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3.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 본문 5~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겸손히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서로를 향해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원리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허무한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인정은 영원한 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친히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11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충성을 다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20(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 폐 회 / 주기도문